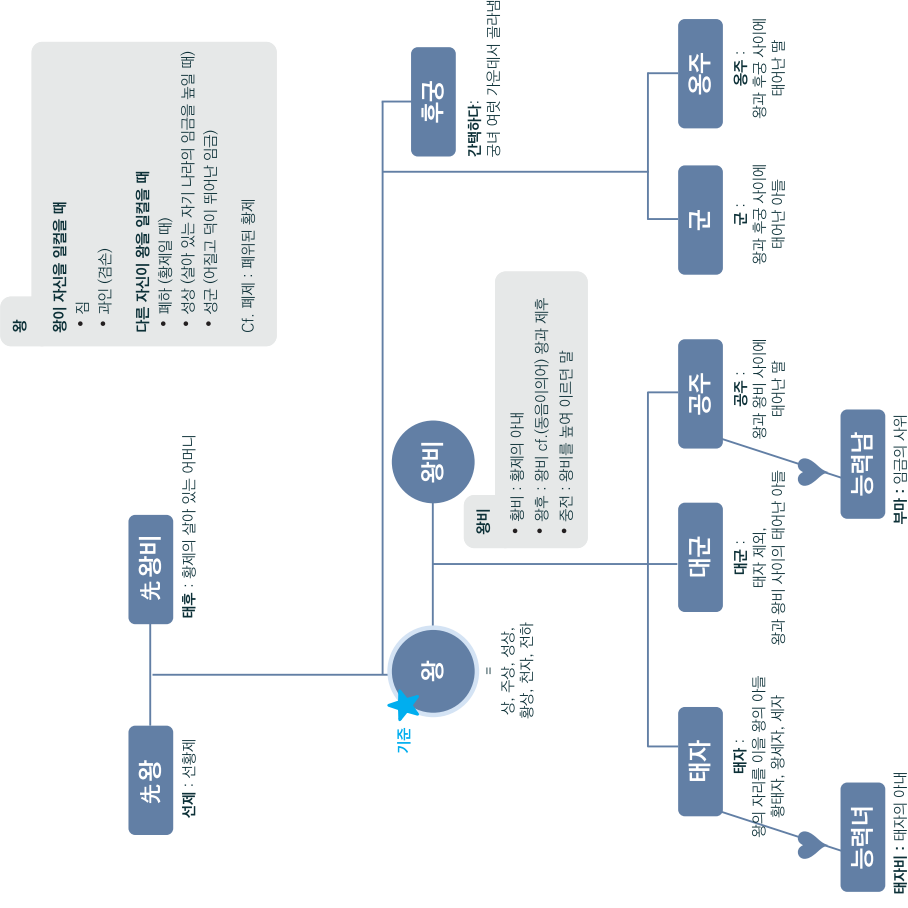


1 왕과 관련된 가족관계

<왕과 관련된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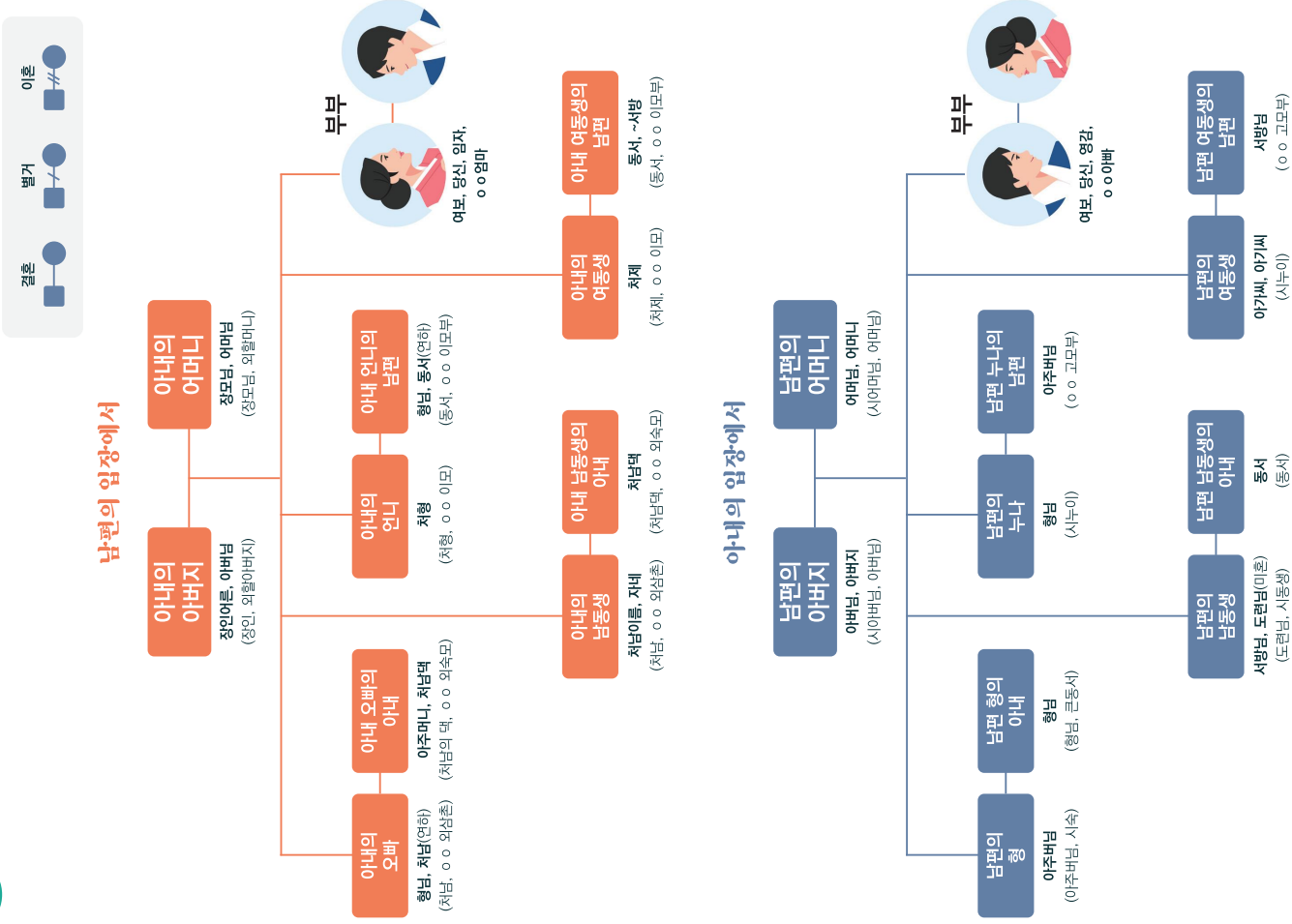
* 참고

- 왕표 : 곤룡포 임금이 입던 정복
- 왕상 : 임금이 접무를 보던 평상.
- 왕안 : 왕의 얼굴
- 왕음 : 임금, 황제의 목소리
- 황상 : 황제가 있는 나라의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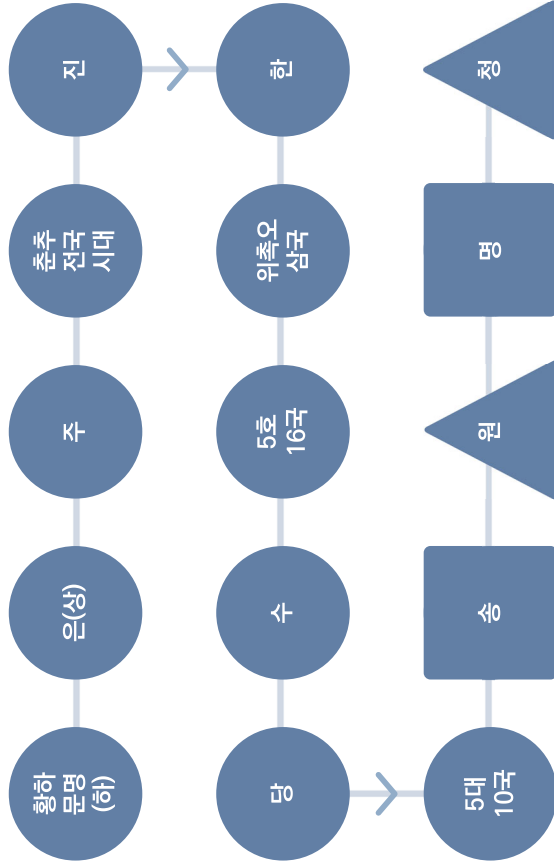
고전소설의 특징

참고: 배경이 중국인 경우가 많다.

- 1 왜냐하면 '조선의 XX'보다는 '천하의 XX'가 스케일이 훨씬 크고 독자에게 인상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 2 왜냐하면 중국 역사서나 소설들에서 큰 영향을 받아 출발한 게 한국 고전소설이었기에 관습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 3 왜냐하면 역사와 소설의 구분이 미묘한 데다 소설에 대한 취급도 폄하가 많았던 시기에 내놓고 '가짜 역사'를 이미 널리 알려진 한반도의 역사 속에 끼워넣기는 어려웠던 점 때문이다.
- 4 물론 배경을 조선으로 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배경설정을 중국으로 잡고 조선을 둘러싸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역사〉



기억해 두어야 할 것

■ 근본의 나라: 주로 명나라, 송나라



- ▲ 오락개 나라: 원, 청(=호국)
- 유목 민족: 말갈, 여진, 남만

왕 같은 존재

- **제후** : 봉건 시대에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
참고) 황제(천자) > 왕(제후) > 공(제후) > 후(제후) > 백(제후) > 자(제후) > 남(제후)

만존백관(=문무제신) : 조정의 모든 버슬아치

문신

책임자

- **승상** : (=재상, 정승)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최고급 관리
- **상공** : 승상을 높여 부르던 말
- **강** : 임금이 재상 이상의 신하를 가리키던 말

실무자

- **판서** : (조선 시대) 육조(이조·호조·병조·형조·공조)의 으뜸 벼슬
- **상서** : (고려 시대) 육부(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의 으뜸 벼슬
- **시랑** : 판서와 상서의 바로 밑의 직책.
- **사자** : 임금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
- **함림학사** : 임금의 조서를 짓는 일을 맡은 벼슬. 비서실장 정도로 생각할 것

무신

- **원수** :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
- **도원수** : 고려, 조선시대에 전쟁이 있을 때 군무를 통괄하던 임시 무관 벼슬

지방 관리

- **감사** : (=사, 총독) 관찰사(각 지역의 으뜸 벼슬)
- **수령** : (=사또)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어사** : 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 벼슬 (높은 벼슬)
- **별감** : 조사, 감독, 취렴 따위를 위하여 지방에 보내던 임시 벼슬 (낮은 벼슬)

권력관계 : 어사>감사>수령

다음 페이지에 계속

준비 단계

- **조사** : 초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이들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 **진사** : 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이들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 **생원** : 생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이들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 **좌사** :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
- **학사** : 학술 연구에 전념하는 선비
- **과객** : 지나가는 나그네, 과거를 보러가는 선비

*

참고) 과거

조선의 과거 제도는 문과, 무과, 잡과로 이루어져 있었다.

문과는 다시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는 소과와 관료를 선발하는 대과로 구분하였다.

무과는 따로 생원과 진사에 해당하는 예비 시험이 없이 바로 본과를 보았는데 시험 시기는 문과의 대과에 맞추었다. 정기적인 대과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식년시였고 이외에 다양한 비정기적인 과거가 실시되었다.

문반의 경우 제일 처음 통과하여야 하는 시험은 초시였다.

초시에 합격하면 생원과 진사를 치를 자격이 주어졌다. 조선 초기에는 생원과 진사의 우열이 없었으나 후기에 들면 생원시에 합격한 뒤 진사를 보는 것이 관례로 굳었다.

생원시의 주요 시험 항목은 유교의 경전을 열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 진사는 주어 진 현안에 대한 논술을 다뤘다. 각각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례적으로 초시, 생원, 진사 등으로 호칭하여 우대하였는데 이들은 지역의 명망있는 유지로서 행세하였다.

출처: 위키백과

가족 구성원 및 관계

- **식솔** : (=식구, 가) 한 집안에 딸린 구성원
- **부형** : 아버지와 형
- **부친** : 아버지
- **모친** : 어머니
- **동기** : 형제, 자매, 남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생질** : 누이의 아들
- **질녀** : 여자 조카
- **OO 소생** : OO이 낳은 아들이나 딸 ex) 후궁의 소생 아들
- **OO 슬하** : OO의 보호 아래 있다는 말 ex) 부모 슬하의 자식들
- **서자** : 첩이 낳은 아들
- **열자** : 친민 신분의 첩이 낳은 아들
- **서모** : 아버지의 첩
- **참** : 정식 부인 이외의 여자 or 결혼한 여자가 뒷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 **유모** : 어머니를 대신해서 젖을 주며 키워준 어머니. 노비 OR 평민 출신
- **불초자** :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자기를 낮춰 부르는 말

- **소생** : 말하는 이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 **소제** : (=소생) OR 나이가 가장 어린 아우.
- **소첩** : 부인이 남편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춰 부르는 말
- **소자** : 아들이 부모 앞에서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
- **불초자** : 아들이 부모 앞에서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
- **소저** : 딸이 부모 앞에서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

노비

- **비복** : 계집종과 사내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시비** : 곁에서 시종을 드는 계집종.
- **노복** : 사내종(한자에 따라 높은 사내종)
- **동복** : 사내아이 중.
- **노류장화** : 길가의 벼들과 담 밑의 꽃,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다는 의미로, 기생을 비유한 말

높임의 대상

- **OO공** : (상대가 남자일 때)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
- **형장** : (상대가 남자일 때) 나이가 엇비슷한 친구 사이의 상대를 높이는 말
- **귀인** :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
- **대빈** : 높이 공경하고 존중하여 받들어야 할 손님
- **대인** : 지위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높이는 말
- **존사** : 스승을 높여 이르는 말
- **선인** : 신선 또는 도를 닦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 **대부인** : (=모부인)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
- **정렬부인** : (=총렬부인) 조선시대에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칭호

남녀를 지칭하는 말

- **O생** : (사람의 성(姓) 뒤에 붙어서) 젊은 남자
- **공자** : 지체가 높은 집안의 나이 어린 아들
- **랑(郎)** : 남자를 달리 이르는 말
- **낭자(娘子)** : 처녀를 높여 이르던 말
- **동자** : 사내아이, 또는 중이 되려고 절에서 공부하면서 아직 출가하지 않은 사내아이
- **계집** : 여자나 아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

00전 (殿) : 가장 규모가 크고 급이 높은 건물. 주로 왕이나 왕비, 대비 등이 사용하는 건물.

ex) 국가 의식을 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근정전), 왕의 침무실(사정전), 왕의 왕비의 침소(강녕전), 대비의 침소(자경전)

00당 (堂) : 크기는 전과 비슷, 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등급의 건물.

ex) 세자가 머무르는 곳(자선당)

00합 (閣) : 전이나 당의 부속 건물.

ex) 양정합

00각 (閣) : 합과 비슷한 규모의 건물.

ex) 규장각, 보신각

00재 (齋) : 왕실 가족이 사는 건물. 생활건물 또는 독서공간으로 사용.

ex) 낙선재

00헌 (軒) : 재와 비슷한 규모. 대청마루가 있음. 공무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사용.

ex) 정관헌

00루 (樓) : (=루, 정, 대) 지면이 바닥에서 3m 정도 높이, 마루만 있는 건물.

참고) 이 건물이 2층일 때 일 층은 '각', 이 층은 '루'로 부름 (ex. 창덕궁 주합루)
ex) 경회루, 광한루

00정 (亭) : (=루, 정, 대) 경치 좋은곳에 휴식이나 연회를 위한 공간으로 연못, 개울 근처에 만들

ex) 향원정, 만향정

00대 (臺) : (=루, 정, 대) 높이나 둘 때위로 높이 쌓아 올려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건물.

ex) 만월대

내당: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

사침(紗衾): 김(비단)으로 바른 창, 아내지의 방 (≠私媵)

침들: 들로 만들어진 계단

대들보: 앞 뒤 기둥 위에 건 보 가운데 가장 큰 보

외모

- **재자가인**: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홍안**: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을 이르는 말
- **섬섬옥수**: 예쁜 여자의 손
- **추비하다**: 못생기다
- **용렬하다**: 못생겼는데 머리서기까지 하다.

결혼

- **결연**: 인연을 맺음
- **가연**: 아름다운 인연
- **간택**: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냄
- **성례**: (=함궁, 가약) 결혼
- **출가**: 처녀가 시집을 갈 or 숙세를 떠나 절에 들어감
- **옥지환**: 옥번지
- **금실**: 부부간의 사랑
- **독수공방**: 홀로 외로움
- **수절**: 정절을 지키
- **해절**: 절개나 지조를 깨뜨림

제사

- **상주**: 상을 주로 관리하는 사람. 대개 장자(長子)가 된다
- **입관**: 시신을 관 속에 넣음
- **발인**: 장례를 지내러 가기 위하여, 시체를 실어서 묘지까지 나르는 도구가 집에서 떠남
- **운구**: 시신을 넣은 관을 운반함
- **삼년상**: 부모의 상을 당해 삼 년 동안 묘에서 거처하면서 지내는 일
- **하직**: 먼 길을 떠날 때 옷어른께 작별을 고하는 것.

감정

- **회포** (=심회, 정회)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감정
- **심중** 마음 속
 - 평소애 잘 살다가
 - **칭명하다**: 시름이 없다.
- 내가 무언가에 잘못하면
 - **업연하다**: 집착하여 미련을 가지다.
- 급하게 움직이고
 - **황급하다**: 몹시 어수선하고 급박하다.
 - **황황하다**: 어쩔 줄 모르게 급하다.
 - **경황이 없다**: 몹시 괴롭거나, 너무 바빠서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 너무 힘들어 하고
 - **망연자결**: 멍하니 정신을 잃음
 - **미혹되다**: 마음이 중심을 못잡고 무엇인가 홀리다.
- 부정하다가
 - **괴의하다**: 괴상하고 의심스럽다.
 - **허황되다**: 어떤 일에 믿음이 안가다.
 - **번색**: 얼굴색이 변하다.
- 분노하다가
 - **노기충천**: 화가 폭발쳐 오르다
 - **충천** (=맹진) 분한 감정이나 의로운 생각이 폭발쳐 오르다
- 반성하고 후회하고 울다가
 - **통한하다**: 한스럽다.
 - **회한**: 너무치고 한탄함
 - **만면수색**: 온 얼굴에 근심이 가득함
 - **수심**: 근심
 - **낙류**: 눈물을 흘림
 - **차연하다**: 애달프고 구슬프다.
 - **애연하다**: 슬픈 듯하다.
 - **애처롭다**: 기없고 불쌍하여 마음이 슬프다.
 - **소슬하다**: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적막하다.
- 좌송해 한다.
 - **송구하다**: 죄송하다
 - **저어하다**: 두려워 하다
 - **무언하다**: 창피하여 볼 낯이 없다.

성격

- **영민하다**: 영특하고 민첩하다.
- **불민하다**: 어리석고 둔하여 재빠르지 못하다
- **불촉하다**: 쉽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나 행동이 깨မ်하다.
- **외람되다**: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분수에 지나치다.
- **간사하다**: 성질이 간교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 **간특하다**: 간사하고 악독하다
- **간교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해하려는 나쁜 꾀를 부리다.
- **음흉하다**: 물래 마음 먹은 것이 흉악하다
- **방자하다**: 무례하고 건방지다
- **막무가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 **비루하다**: 기범고 가지 없다.
- **녹록하지 않다**: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
- **호탕하다**: 호기롭고 걸걸하다
- **추상갈다**: 기일의 찬 서리처럼 엄하다. ex)진하께서 추상갈이 호령했다.
- **지엄하다**: 매우 엄하다
- **무엄하다**: 아주 무례하다
- **조월하다**: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다.

상태 및 상황

- **필연**: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됨
- **출연**: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 **모연하다**: 소식이나 행방 따위를 알 길이 없다.
- **부득이**: 마지못하여 하는 수 없이
- **박명하다**: 복이 없고 필자가 사납다.
- **혼백**: 혼과 백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원혼**: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

임신양명: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림

- **재수하다**: 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
- **참거하다**: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함.
- **봉하다**: 임금이 신하에게 일정 정도의 영지를 내려 주고 영주로 삼음.

9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

명 : (=명령)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 **칙자** : (=칙명) 임금님의 명령
- **조서** :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 **교자** : (=교사) 임금의 명령을 벼슬아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 **하교** :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명령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 **일현하다** :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빌다.
- **간하다** : (=간언하다, 간쟁하다) 임금이나 웃어른에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직접 말하다
- **참소하다** : (=참언)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웃사람에게 고하여 버치다
cf. 모의하다 : 어떤 일(특히 범죄 등 나쁜일)을 꾀하고 의논하다.

여성의 삶

- **침선** : 바느질
- **수품** : 바느질 솜씨

여행

- **행장** :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처림
- **노자** : 먼 길을 떠나 오가는 데 드는 비용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 **금일** : 오늘
- **명일** : (=익일) 내일
- **석일** : 어제
- **사흘** : 3일
- **나흘** : 4일
- **차사** : 이 때
- **매양** : 항상
- **삼경** : 밤 11시~1시 사이.
- **만교** : (=천교, 천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 **경각** : 눈 깜빡할 사이
- **식경** : 밤 한끼 먹을 시간

- **고왕금래**(古往今來) : 예전과 지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고금)
- **구상유취**(口尚乳臭) :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이 유치함을 이르는 말.
- **대경실색**(大驚失色) :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 **만고풍상**(萬古風霜) :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어 온 많은 고생.
- **만단정회**(萬端情懷) : 온갖 정과 회포.
- **만면수색**(滿面愁色) : 온 얼굴에 근심이 가득함.
- **만사무석**(萬死無惜) :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음.
- **망연자실**(茫然自失) : 멍하니 정신을 잃음.
- **명재경각**(命在頃刻) :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
- **막무가내**(莫無可奈) : 도무지 응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어 어찌할 수 없음.
- **뇌성벽력**(雷聲霹靂) : 천둥소리와 벼락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노기충천**(怒氣衝天) : 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머리끝까지 치받쳐 있다. cf. 분기충천(=분기맹천)
- **봉고파진**(蜂庫罷職) : 아사나 감사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고을의 관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그던 일.
- **분기대발**(憤氣大發) : 분한 마음이 크게 일어남.
- **불승분노**(不勝忿怒) : 분노를 참지 못함.
- **불원천리**(不遠千里) : 천 리 길도 멀다고 여기지 않음.
- **사은숙배**(謝恩肅拜) : 예전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손하고 경건하게 절을 올리던 일.
- **수원수구**(誰怨誰咎) :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나는 뜻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이르는 말.
- **인지상정**(人之常情)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 **재자가인**(才子佳人) :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창천벽력**(青天霹靂) :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번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친봉지동**(天崩之痛) :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는 뜻으로, 재앙이나 아버지의 죽음을 당한 슬픔을 이르는 말.
- **폐포파림**(弊袍破笠) : 헤어진 옷과 부서진 갓이란 뜻으로, 초라한 처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화옹월태**(花容月態) :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 **황홀난측**(恍惚難測) : 매우 황홀하여 헤아리기 어려움.
- **훈비백산**(魂飛魄散) :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